

동아시아 각국의 출판편집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의 편집자를 중심으로

Han Ju-lee,
Seoil University

<차례>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 현황
 - (1) 한국의 출판 현황
 - (2) 일본의 출판 현황
 - (3) 중국의 출판 현황
4.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1) 한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2) 한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 (3) 한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5.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참고 문헌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출판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 및 조직의 변화를 초래했다. 편집기획자를 중심으로 하는 임프린트 출판형태가 나타났고, 제작환경의 디지털화로 인해 도서제작작업이 간편화되었으며 제작비 절감 및 인터넷 서점의 등장, 마케팅 시스템의 도입과 기획사 및 에이전시 등 외부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2000년도 이후 출판계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1만 권 넘게 팔린 화제의 도서들 중 1인 출판을 통해 이뤄진 경우가 많다. 『창가의 토토』, 『백만불짜리 습관』, 『테이레시아스의 역사』,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등과 같은 도서들이 1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러한 1인 출판이 가능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 출판 제작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다(한주리, 2006). 이처럼 콘텐츠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 출판산업에서 기획자로서의 편집자의 역할 및 능력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에서의 '편집자'는 출판인-편집자(publisher-editor)와 편집자(editor)의 두 부류로 크게 분류된다. 한국출판산업에 있어 전자는 출판사의 경영자이고 후자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高世鉉, 2006)¹⁾.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전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집자가 출판인-편집자로 되는 경우도 많으며, 앞서 언급한 1인 출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출판계에서 직원으로서의 편집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의 출판계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주리(2006)²⁾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전문화 과정의 도입으로 출판계에서 개별 편집자에게 갖추도록 요청되는 능력이나 기술은 점차 많아지는데 비해 그에 따른 처우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출판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또한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해 낮아서 출판계로 진출하려는 인력이 많지 않은 면도 있다. 또한 신문기자나 대학교수와 비교해서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한국의 편집자들이 책을 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국의 경우는 출판이라는 영역을 신문, 방송과 더불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판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고 편집자들도 일종의 문화적 공직자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는 이와나미

쇼펩(岩波書店), 카게이 쇼보오(影書房) 등의 출판사에서 아무리 사정이 어려운 출판사라도 편집자에 대해서 (한국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판편집자들의 능력과 여건, 즉 그들의 주체적 조건에 대해 동아시아 3국인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의 출판산업 규모와 각국의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삼국의 출판산업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편집자의 위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또다시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산업 전반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일본, 중국의 편집자의 위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한국, 중국, 일본관련 문헌 연구, 질의응답 및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였다. 각국의 출판환경에 대한 현황은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에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편집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염두에 두어 중국의 경우 중국의 출판참고잡지사 부사장, 출판과학연구소 중국서적출판사 부사장, 중국출판과학연구소 부연구원 등이 한국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였을 때 질의 응답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중국 편집자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동아시아출판인회의(East Asia Publishers Conference)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출판사 편집자들의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없지 않다. 또한 한국의 경우 출판편집인의 처우와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고, 단순한 답변 이외에 응답에 관련된 의견과 동기,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주제에 관한 답을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경험과 사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Hansen, Cottle, Negrine, & Newbold, 1998).

3.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 현황

(1) 한국의 출판 현황

1990년대 이후 한국출판산업 내의 기술력의 발달이 급속화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출판사 간에 출판물에 대한 논의의 잣대가 전무해질 만큼 출판방향이 다양화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DTP가 활성화된 이후 출판작업공정이 가속화되면서 내부 인력만으로는 작업 공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출간 진행 상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정 등 편집대행 외주업무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외주업체가 등장하고 이의 활용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제분야에 따라 특정독자층을 겨냥한 출판사가 등장하였다. 유통의 경우, 서적 도매상 및 소매상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점, 대형할인점, 편의점(CVS), 방문대여업체, 지하철판매대 등으로 유통시장이 다각화됨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도매점 위탁배본 시스템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생산자 위주의 위탁 중심시스템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대신 도서별, 유통업체별로 별도의 이벤트가 기획되기 시작했다.⁴⁾

또한 파주에 출판사, 유통사, 인쇄소, 제본소 등 출판을 위한 단지(cluster)가 형성되었다. 파주출판도시는 세계화.개방화 및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출판시장 개방에 따른 출판관련 산업의 협업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48만평에 조성된 국가문화산업단지이다⁵⁾. 출판물류유통의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문화산업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자식별체계)를 도입한 유통사도 있다.

한국의 출판사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할 구청에 가서 출판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실적 출판사가 전체의 90%에 이르며, 25,000여개의 등록된 출판사 중 실제로 출판활동을 하는 곳은 25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출판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져서 민음사, 김영사, 웅진, 교보, 랜덤하우스, 예담출판사 등 상위 30개사가 출판계 전체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출판사들은 매출확대를 위해 유능하고 실력이 검증된 기획자 및 편집자들을 발탁하거나 스카우트하여 별도의 브랜드를 내걸고 기획, 편집, 제작, 홍보, 판매 등을 실시하는 임프린트(imprint)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⁶⁾ 출판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판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자본 못지않게 기획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⁷⁾ 이처럼 한국 출판산업은 다양한 외주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도서출판에 속도를 가하고, 더욱더 다양해진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매체 및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독서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의 출판 현황

일본의 출판시장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출판계의 장기적 출판 불황은 인터넷의 보급과 휴대폰 시장의 확대로부터 기인한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서출판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⁸⁾. 도서시장은 10년 전인 1996년을 정점으로 장기적인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2002년, 2004년, 2006년 등 2년 주기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 베스트셀러의 유무에 따라 연간 판매실적이 좌우되는 경향이 고착화된 것을 의미한다.⁹⁾ 일본의 출판과학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일본 출판시장의 매출 규모는 도서와 잡지를 합해 총 2조 1,526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액수이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트렌드로 나타나는 것은 저렴한 단행본과 문고본(신서)의 활황, 이른바 ‘휴대폰소설’출판의 확장, 노년층 대상의 책과 학부모를 위한 아동교육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상독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도서관의 이용증가 등으로 책을 소유해서 읽는다는 지금까지의 독서행위가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서점에서 구매까지 연결이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¹⁰⁾.

또한 일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물의 무단 대여를 금지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출판물대여관리센터(RRAC)는 2007년 2월말부터 대여용 만화에 대한 대여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출판자의 권리 보호’가 출판계의 중요 관심사로 뿌가고디었다. 출판물의 기획, 편집, 생산에 기울인 출판인의 노력과 투자가 저작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보호 내용은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한 복제, 전송, 양도, 대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원활히 수용되지 않으면서 출판계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지적재산전략본부’에 2006년 3월부터 의견서를 보내는 등 출판물의 저작권접권인 판면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¹⁾

(3) 중국의 출판 현황

중국의 출판산업은 모두 러시아식 체제를 도입하여 각종 출판자원은 시장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단으로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출판사들은 자주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원의 행정적 독점과 보호에 의지했다. 즉 출판산업의 투자주체는 완전히 국유 단일독점업이었던 것이다.¹²⁾ 출판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조직에 의해 철저히 통제됨으로써 출판사들은 자체적인 기획의 권한을 갖지 못했다. 즉 공산당의 방침에 의해 편집 및 교정, 교열 등 기술적인 일을 수행하는 차원에 머물렀다.¹³⁾

1978년 덩소핑(덩 샤오핑)에 의해 개혁, 개방정책이 천명된 이후로부터 중국의 출판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출판업체제는 단순한 생산형으로부터 생산경영형으로 변화되었고 사업단위로부터 기업화관리 체제로 전환되었다. 정부관리 부문에서는 과거 정부와 기업합일이 기업과 정부 분리로 변화하고자 하였다. 도서의 유통영역에서도 도서 도매센터와 대리제 및 유통기업 집단구축, 기업경영체제 전환 및 신환서점 주식체제와 현대기업제도 구축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이 진행되었다.¹⁴⁾ 또한 2001년 연말에 WTO 가입 후 대외개방 관계 법률, 법규들을 제정하였다.¹⁵⁾ 개혁개방 이후 민영 도서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중국 출판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2003년 신문출판총서에서 ‘출판물시장관리규정’과 ‘외국상인이 투자한 도서, 신문, 잡지 소매기업에 대한 관리법’을 차례로 반포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법규의 반포는 중국의 출판유통 영역에 대한 국유 독점경영국면을 취소하고, 실력있는 민영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출판물의 소매영역에 진입하도록 승인하였다.

이처럼 덩소핑이 집권한 이후 시장경제 도입이 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측면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여전히 고수하였다. 결국 편집 및 광고, 홍보 등 다른 측면의 의사결정만 개별 출판사에 위임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대다수 출판사는 정부에서

출자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이 여전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형태의 출판물의 내용 및 출판형식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¹⁶⁾ 도서 출판업체의 설립 승인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서로부터 인가가 남과 동시에, 그 출판사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의 종류와 출간할 책의 형식에 대한 선이 그어진다. 출판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4.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1) 한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이 얼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느냐와 많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통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의 총합으로서 “과제 또는 직무에 대한 개인적이며 감정적 반응(James & Jones, 1980)”이기 때문이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교육수준, 현재의 직위 및 근무경력(김상옥, 2001), 자기효능감(신재원, 2001), 급여, 후생복지 등의 보상체계(Poulin, 1992)¹⁷⁾에 대한 만족 정도, 효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Blankertz & Robinson, 1997) 등이 있다. 또한 조직의 정책과 관리, 승진기회, 작업시간의 소요 등 근무조건이나 보상과 관련된 요소 및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가치적 지향성이 자신의 지향성과 맞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김새로미, 정상원, 심임섭, 2008)¹⁸⁾. 이처럼 사람들은 현재의 직위나 교육수준, 근무경력, 급여 등에 의해 만족감을 느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족감은 또한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업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① 한국 출판편집자의 채용과정

우선 한국 출판편집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개별 출판사에서 신문공채, 인터넷 홈페이지 공채, 추천, 연고 등을 통해 이뤄진다. 2005년의 경우, 추천 및 연고에 의한 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¹⁹⁾ 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해당 출판사별로 시험을 치르거나 면접과정을 통한다. 이처럼 출판사 인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공고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맥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경영자들은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하였다. 교정과

교열시험을 실시하며, 대부분 현실적으로 일에 바로 투입가능한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신입이라고 해도 2~3년차가 가장 많았다.

② 한국 출판사 근무자의 임금구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급여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출판사 근무자들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출판사 근무경력과 연봉의 예(2005)²⁰⁾

출판근무경력	연봉(만원)	월급(만원)
1	1200 ~ 1900	100 ~ 158
2	1200 ~ 2200	100 ~ 184
3	1800 ~ 2900	150 ~ 242
4	2200 ~ 3000	184 ~ 250
5	2600 ~ 3400	217 ~ 284
6	2600 ~ 3000	217 ~ 250
7	3000 ~ 4000	250 ~ 334
8	3300 ~ 4000	275 ~ 334
9	2800 ~ 6400	234 ~ 534
10	3500 ~ 5000	292 ~ 417
12	5000 ~ 6000	417 ~ 500
13	5500 ~ 6000	460 ~ 500
15	5000	417
20	8000	667

2005년의 경우 출판사 근무 1년차의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8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차의 경우 150만원~242만원, 5년차의 경우 217만원~284만원, 7년차의 경우 250만원~334만원,

9년차의 경우 234만원~534만원, 12년차의 경우 417만원~5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월급은 출판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편집자의 급여만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수치만 가지고 편집자의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출판사 구조에서 보면, 기획편집부, 마케팅부, 디자인부, 경리회계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으며 이 중 편집자는 대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금도 위의 <표 1>에서 제시한 것 중 2~3년제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기도 하는 다른 부서에 비해 관행상 더 높음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출판편집자에 대해서 출판사 사장 및 편집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 파악하였다. 한국의 한 출판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편집자의 지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규모와 활력에 비해서 출판 산업은 그 비중이 너무나 작기 때문인지, 유능한 젊은이 가운데 「사원」으로서 책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인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수가 높은 수준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든가 혹은 문화적으로 각광 받는 다른 직업이나 직장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환영 받지 못하는 인재, 바꿔 말하면 능력이 뒤떨어진 인재가 차선책으로 출판사를 선택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인재로는 양질의 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처럼) 신문 기자나 대학교수에 비해 현격하게 열악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한국의 편집자에게 양서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무리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출판계가 그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소수의 출판인-편집자들의 의욕과 능력에 의한 것이며, 다수의 편집자들은 그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뿐이어서,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출판경영자 1)

즉, 중국의 경우 출판편집자가 국가 공무원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을 토로하였다. 이는 결국 한국의 출판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신문사나 대학보다 낮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출판편집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기획을 해야 하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야 하는 부담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환경에서 자신이 기획한 책의 매출이 높아지면 막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만부 이상 베스트셀러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1만부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계속 그 이상 그 이상을 요구해요. 그렇게 되면 기획자나 편집자가 내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한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결국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 편집자 1)

이처럼 한국의 편집자의 경우 도서기획에 대한 중압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며, 베스트셀러를 기획한 경우에도 후속 작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판사에서 요구되는 면이 이러한 데 반해 정작 본인들이 느끼는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봉 협상 시 일정 기준이 없어, 자기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복지제도나 야근 수당이나 경영진의 비상식적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노조가 있어서 일정 연봉 기준과 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노사 모두 그 테두리 안에서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일정한 투자를 하지 못할 악덕 사업주나 무능력한 사업주가 애당초 받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출판등록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출판산업의 영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편집자 2)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출판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임금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출산휴가 등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복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영세함이나 자본의 부족 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관행으로 정착된 면이 있는 것이죠. 출판 사업주들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러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편집자 3)

출판업 전반이 그러하겠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요. 동종 업계 내에서 다른 출판사들과 비교하면... 어차피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대기업이나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급여 면에서 낮은 편입니다. 급여뿐 아니라 복리후생이나 기타 제반 문화 복지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편집자 4)

한국의 편집자의 경우, 출판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편집자와의 연봉협상을 하고 있으며, 복지제도나 야근 수당 등에 대한 혜택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편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누구나 출판등록을 하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출판등록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행으로 굳어져온 복지혜택의 부실함은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지와 자부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우에 대한 만족보다 본인이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 때문에 출판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판편집자 중에 본인이 받는 처우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영세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있고 싶지 않은 곳에서,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적은 임금을 받는 편을 택한 것뿐이에요. 출판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지극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에요. 품이 많이 들고 수익성은 없지요. 그렇다면 동남아나 중국으로 옮겨야 하지만, 이 분야는 우리 언어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정신적인 산업이어서 그게 불가능하구요. 저는 처우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내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은 인문 위주로 책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향이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편집자 5)

즉 출판산업은 우리 언어로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 자체에서 생기는 보람이 있기에 출판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편집자의 경우는 만족도를 경제적인 것에 두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에 둔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판계에서 40살이 되면 편집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데, 이러한 말에 대해 한 출판인은 출판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편집자들이 40살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양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어요. 경영자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거죠. 비전과 복지. 우리나라에서 30대 후반 되서 차장 못하면 바보취급을 해요. 책이란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로 나와야 되는데 30대 후반, 나도 서른 한 살 두 살에 창업을 했지만, 웬만한 비상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도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편집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중략)... 그래서 경영자들이 우리 출판산업이 발전해서 어떤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자안이

마련돼야 해요. 그걸 못하는 것은 뭐 국가탓도 아니고 경영자들 부족한, 자질이 부족한 탓이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여기서 찾아야 되요 자기 비전을.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누가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창업하는, 스스로 창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그 만족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한국 출판경영자 2)

출판편집자를 뽑을 때 보면 젊은 층이 콘텐츠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 명문대 인문분야 사람들이 출판분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독립적인 일, 자기 분야를 쌓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SBI 통해서도 좋은 인력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 1~2년 간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한국 출판경영자 3)

결국 출판계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 40대가 넘으면 창업을 하거나 출판계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판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적으로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느끼는 만족감, 문화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자긍심이 뒷받침해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영자의 경우, 출판산업 쪽으로 명문대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었다. 즉 출판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콘텐츠 소화능력이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인력이 유입되고 있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출판경영자들은 출판편집자들의 역량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우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편집자들이 인식하는 출판계의 일반적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어지는 업무에 비해 복지혜택과 급여 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① 일본 출판편집자의 채용과정

일본의 출판사 입사의 경우, 대부분 대졸 자격을 필요로 한다. 출판사는 모집 요강을 자사매체나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생의 경우 늦어도 3학년 초부터는 출판사 취업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작문,

창의력, 잡학력(시사, 교양, 어학, 상식), 기획력의 4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판고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이며, 세계적인 기업이나 쟁쟁한 언론사보다 경쟁률이 높은 출판사가 있다. 평균경쟁률은 100대 1 정도이다. 일본 최대의 출판사의 고단사의 경우, 7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운 응시자가 몰리는데 2003년의 경우 20명을 채용하였다.²¹⁾ 이처럼 일본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으며 출판산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일본 출판사 근무자의 임금구조

일본의 경우 출판사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대형출판사일수록 보수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람있고 즐거운 직업이기 때문이다.²²⁾ 출판관계의 평균임금에 대해, 일본의 『2008년판 출판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110곳의 출판사 근무자의 연령별 임금을 살펴보았다. 2007년도의 출판사 근무자들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출판사 근무자의 연령과 월급의 예(2007)²³⁾

연령	월급(엔)	월급(원)
28	259,376	2,100,946
31	205,266 ~ 343,371	1,662,655 ~ 2,781,305
32	278,028 ~ 298,523	2,252,027 ~ 2,418,036
33	304,014 ~ 316,889	2,462,513 ~ 2,566,801
34	183,450 ~ 344,448	1,485,945 ~ 2,790,029
35	278,295 ~ 405,269	2,254,190 ~ 3,282,679
36	297,071 ~ 415,869	2,406,275 ~ 3,368,539
37	294,674 ~ 453,515	2,386,859 ~ 3,673,472
38	344,858 ~ 477,870	2,793,350 ~ 3,870,747
39	250,329 ~ 538,309	2,027,665 ~ 4,360,303
40	258,610 ~ 384,043	2,094,741 ~ 3,110,748
41	275,892 ~ 492,480	2,234,725 ~ 3,989,088
42	323,588 ~ 575,125	2,621,063 ~ 4,658,513

43	274,133 ~ 401,001	2,220,477 ~ 3,248,108
44	327,857 ~ 740,200	2,655,642 ~ 5,995,620
45	325,380 ~ 431,284	2,635,578 ~ 3,493,400
46	385,778	3,124,802
47	364,744 ~ 415,192	2,954,426 ~ 3,363,055
48	389,472	3,154,723
50	326,533 ~ 368,275	2,644,917 ~ 2,983,028
51	343,740	2,784,294
52	352,329 ~ 426,340	2,853,865 ~ 3,453,354
53	298,534 ~ 514,046	2,418,125 ~ 4,163,773
54	353,070 ~ 547,577	2,859,867 ~ 4,435,374
55	228,300 ~ 532,165	1,849,230 ~ 4,310,537
56	373,300 ~ 539,715	3,023,730 ~ 4,371,692
57	405,500 ~ 560,908	3,284,550 ~ 4,543,355
58	505,708	4,096,235
59	795,000	6,439,500
61	431,041	3,491,432

일본의 출판사 임금을 한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연령별로 조사한 항목을 정리한 결과, 2007년의 월급으로 보면 28세가 210만원, 31세가 160만원~270만원의 분포를 보인다. 34세의 경우는 148만원~279만원, 37세의 경우 238만원~367만원, 39세는 202만원~436만원, 40세는 209만원~311만원, 42세는 262만원~465만원, 43세는 220만원~324만원, 44세는 265만원~599만원, 47세는 295만원~336만원, 52세는 285만원~345만원, 55세는 184만원~43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편집자의 급여만을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편집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임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같은 연령이고, 출판사라는 동종계열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44세를 예로 들면, 임금 간의 격차가 한 달에 334만원이나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완하고자 출판사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실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출판관련 잡지인 <출판저널>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대졸 월급 초임은 다른 직종과 비슷한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후쿠인칸과 같은 출판사는 450만원인 곳도 있다. 또한 30대 후반 기준으로는 평균 600만원, 55세 기준으로는 900만원 등 연봉 1억원 상당인 곳도 상당수 있다.²⁴⁾ 이처럼 일본의 출판산업은 대규모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일본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출판산업의 전반적 흐름이 한국과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출판편집자의 처우에 대해 일본 출판계의 경영자와 편집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²⁵⁾

저는 40년 정도 출판 업계에서 일하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만, 40여 년 전에 출판업계의 급료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높았습니다. 적어도 당시 제가 받고 있었던 급료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상사에 비교해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출판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급료도 점점 낮아져서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임금은 모든 업종 중에서도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출판사 편집국장 1)

다만 같은 일본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지요. 大塚(오즈카) 선생님은 매우 높은 급여를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있던 미쓰즈書房에서는 그런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웃음). 경쟁사회이기에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지역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출판사 사장 1)

앞 서 살펴본 임금구조 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출판산업의 임금은 출판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또한 과거에 비해서는 출판계의 임금이 모든 업종에서 뛰어난 수준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① 중국 출판편집자의 채용과정

중국의 출판사 근무자들은 국가 공무원의 성격을 띤다. 1980년 중국의 국무원은 국가출판국, 국가인사국에서 제정한 <편집간부 직무상의 칭호에 대한 임시규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편집업무의

직칭을 편집심사, 부편집심사, 편집, 편집보조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출판전문인원의 직종자격은 초급, 중급, 고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초급, 중급시험에는 전국단위 시험제도를 실행하였고, 고급시험에는 시험과 평가심사를 결합하는 제도를 실행하였다. 중국에서 출판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출판전문직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규정된 등급의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만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²⁶⁾ 또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편집자에 지망하는 지를 파악하면 대체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졸이상인 사람입니다. 삼련서점(三聯書店)이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이라는 역사가 있는 출판사의 경우는 석사 혹은 박사 수준의 사람이 많지요. (...중략...) 중국에서 편집자의 지위는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삼련서점(三聯書店)에서는 매년 사원을 2, 3명 채용합니다만, 1000명 이상이 지원합니다. 그 만큼 편집자는 사회적으로도 존경 받고 있고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출판사 사장 겸 편집장 1)²⁷⁾

중국의 채용과정은 국가 공무원과 같은 성격을 띠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출판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편집자를 모집하게 되면 모집자가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방송학부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가 있었는데 춤과 노래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편집부에 일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방송은 기계적 사업이라서 재미가 없고, 편집은 여러 학자와 만나고 전문가와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취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출판업계에 일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판사 경영자 2)”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출판산업은 타산업과 대비하였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중국 출판사 근무자의 임금구조

중국의 출판사 편집자의 경우, 월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급여수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급여 수준은 1993년 이후로는 대폭 오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서점직원의 급여와 그다지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서는 다른

상공업계와 비교해도 출판사는 평균적 혹은 약간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집자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출판사에는 연간 간행 점수나 이윤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제도에 따라 베스트셀러를 내는 편집자는 특히 수입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은 낮아지게 되지요. 영업·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그들의 경우는 수입에서 차지하는 포상금의 비율이 편집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유연성 있는 급여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출판사 사장 겸 편집장 1)

이렇게 볼 때, 중국 내 출판사 편집자는 급여수준이 높고, 포상금 등을 통해 유연적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출판사 직원은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③ 중국 출판편집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중국은 2008년 현재 정부에 의해 575개사의 출판사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편집자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웨이유산²⁸⁾과의 인터뷰에서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는 “편집심사는 교수급이고, 부편집심사는 부교수급”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에서 편집자의 사회적 지위는 출판업의 발전과 함께 높아져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초기는 출판사 수가 굉장히 적고 전국에서 몇 십 개가 있었고 문화혁명이 끝난 1978년이라도 106개사 정도였습니다. 당시 출판사의 급여 대우는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자만큼 높지는 않아서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학에 근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의 지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쯤부터 출판업이 현저하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도 확대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출판사가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수백 명이 응모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출판업도 옛날의 좋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제1지망은 신문사나 방송국 등 매스컴이고 그 다음이 출판사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출판사는 아직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전 편집장 1)

중국 출판업계의 편집자는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인 지위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중시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출판사의 편집자 지위는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된 것입니다. 중국의 출판시장은 확대과정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편집자의 수입은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편집자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 하나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입니다. 이전의 편집자는 정책에 따른 정치적인 서적이나 이론을 설명한 학술서를 출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 하에서 상업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입은 높아도 현재 상황에 압력을 느끼고 있는 편집자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편집자의 경우는 그러한 압력이 적지 않을까요? (중국 편집자 1)

중국의 출판업계는 오히려 과거에는 높은 지위를 누리지 않았지만, 1985년부터 출판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산업의 향상은 출판계 종사자들의 지위향상을 고무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난 변화는 개혁, 개방 정책에 의거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촉발된 변화들로서 상업적인 출판시장의 성공여부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판편집자들의 능력과 여건, 즉 그들의 주체적 조건에 대해 동아시아 3국인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출판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한국의 출판상황 및 각국의 편집자 채용과정, 출판사근무자의 임금구조, 출판사 편집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국의 출판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출판사는 출판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상위 30개사의 전체 출판사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출판산업은 다양한 외주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도서출판에 속도를 가하고, 더욱더 다양해진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매체 및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독서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상독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도서관의 이용증가 등으로 책을 소유해서 읽는다는 지금까지의 독서행위가 변화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출판산업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소유의 산업이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형태의 출판물의 내용 및 출판형식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 도서 출판업체의 설립 승인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서로부터 인가가 남과 동시에, 그 출판사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의 종류와 출간할 책의 형식에 대한 선이 그어진다. 출판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운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 일본, 중국의 출판편집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한 결과, 한국은 출판사 종사자 채용 시 추천 및 연고에 의한 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의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처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출판경영자가 우위에 서서 편집자와의 연봉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나 야근 수당 등에 대한 혜택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출판경영자들은 출판편집자들의 역량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우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영자와 근무자 간의 견해차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출판사에 들어가려면 ‘출판고시’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며 출판산업에 대한 인식도 한국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출판사 임금을 살펴보면서 나타난 특징은 한국의 경우는 15년 이상을 편집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일본은 출판사에서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 출판산업의 경우 경력자가 되어 다중 숙련된 기술력과 정보력,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여 군소 출판사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인데 반해, 일본은 경력자들이 경영자가 아닌 내부 근무자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출판업계는 오히려 과거에는 높은 지위를 누리지 않았지만, 1985년부터 출판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높은 지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산업의 향상은 출판계 종사자들의 지위향상을 고무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난 변화는 개혁, 개방 정책에 의거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촉발된 변화들로서 상업적인 출판시장의 성공여부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취향이 다양화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변화됨으로써 출판시장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도서를 출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출판산업은 결국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능력, 그 중에서도 도서의 기획 및 편집과정 전반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편집자의 능력이 곧 출판사의 경쟁력이 되는 산업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의 출판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려면 그에 걸맞는 대우와 종사자 전문교육 등 종합적인 산업구조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각국 출판편집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관련 문헌 연구, 질의응답 및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자료의 경우 학회에서 질의 응답 및 개별 인터뷰를 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동아시아출판인회의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토의한 개개인의 내용을 인터뷰 대신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 편집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2차 자료를 이용한 것은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각 국의 편집자들과 직접적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낸다면 보다 심도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희일, 「출판산업의 전환기적 환경」, 『한국출판의 이해』 (2007), 349~366쪽.

권석만 (1996). 임상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 정신병리에 나타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세미나, 105-133.

권정혜, 이소영 (2008). 부부의 외적 속박감 및 상대적 지위 지각에 따른 분노표현과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pp. 69-84. 서울: 한국심리학회.

김새로미, 정상원, 심임섭,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관 책임성 수행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1호(2008), 67~91쪽.

김영구,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출판시스템의 발전」, 『한국방송대학 논문집』, (2001), 3~20쪽.

김진두, 「중국 출판 산업 변화와 도서 수출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3호(2007), 33~60쪽.

김진두, 「중국 출판 산업 변화와 도서 수출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3호(2007), 41~42쪽.

문연주 「다매체시대의 총서출판의 매체경쟁력 일본의 교양신서 출판의 역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3호(2007), 153~181쪽.

박몽구, 「문화변동과 한국출판의 위상 변화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2권 1호(2004), 133~157.

백원근, 「우수인력 몰리는 ‘출판고시」, 『출판저널』, 9월호 통권 334호, (2003), 136쪽.

백원근, 「일본 출판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유비쿼터스 출판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2호(2007), 159~186.

서민, 「중국 출판산업의 개혁과 발전」,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47호(2004), 231~258쪽.

우에다 야스오, 「일본의 출판현상과 국제교류」, 『한, 중, 일 출판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2003) 12월, 29~47.

웨이유산, 「중국의 출판정책」, 『제10회 한중 출판학술회의 논문집』, (2008), 7~37쪽.

高世鉉, 「東アジア各國における編集者の社會的地位」, 東アジア出版人會議, 『東アジアの出版交流』, 東京: 東アジア出版人會議事務局., 2006, 34~37쪽.

Poulin, J. & Walter, C., Retention plans and job satisfaction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9(1992), pp.99~114.

東アジア出版人會議 (2006). 『東アジアの出版交流』, 東京: 東アジア出版人會議事務局.

